

# 중국 청대 복식에 사용된 색채에 관한 연구

금 기 숙\* · 정 현<sup>+</sup>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sup>+</sup>

## A Research on the Chinese Color through the Costume of Qing Dynasty

Key-Sook Geum\* · Hyun Jung<sup>+</sup>

Associate Professor, Dept. Fiber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Instructor, Dept. Fashion Design, Deagu University<sup>+</sup>

(2003. 11. 13 투고)

### ABSTRACT

The significant role of colors in fashion design is not enough to emphasize in terms of one of the important design elements and its influences on the behaviors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traditional Chinese colors and its ways of color combinations to appreciate the Chinese culture and its people. The Chinese traditional costume of Ching Dynasty were investigated through historic records, historic nobles, costume accessories and so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Blue was the most favoured color for clothing among men and women during Ching dynasty and various blues in terms of hue, value and intensities were used.
- (2) The bright Yellow which had been a symbol of Emperor were prohibited being used among people. Though, the late period of Dynasty, the regulation became not to strict and various shades of yellow families were adapted among people.
- (3) The Red which had been preferred during Ming Dynasty were constantly favoured for the formal wears of auspicious events such as weddings.
- (4) Dark color groups were loved for the clothing which were used as a ground colors against the flamboyant patterns revealing strong visual effects through value contrast or primary color combinations.
- (5) The White had a symbol of mourning and there were some intentions to adopt pale color groups such as mint, jade, gray, moon white, silver white to make up for white.
- (6) Contrast color combinations were one of the basic ways of color combination in Chinese traditional costume. Therefore Chinese color combinations has a strong visual effect and easy to draw attention of people by the contrast of the hue, value or intensity of color.

- (7) Multi-color combinations were another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stume in the formal wears which bears many surface designs. The surface decorated with full of motifs, were appreciated by the people expressing their longings and hopes through the auspicious meanings of patterns and striking visual effects of color combinations.

Key words : color preferences(선호색), color combination(색채조화), value contrast(명도대비), complimentary contrast(보색대비), costume accessories(복식소품)

## I. 서론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지중해 민족들은 흰색을 좋아한다’ 처럼 민족별로 선호하는 색의 차이가 있고, 각 문화별로 각기 다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므로 ‘민족색’, ‘색채의 지역성’이라는 말이 있다.<sup>1)</sup> 이는 각 색에 대한 태도나 사용법, 나아가 습관이나 색채 기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민족색이나 지역색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천성적인 부분과 각자 독특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후천적인 두 가지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색채 사용은 그 나라의 기후나 일조량, 음식, 전통적인 관습, 국민의 기질, 신체적인 특징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sup>2)</sup>

본 연구는 중국인들의 색채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중국 청대 전통 복식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과 그 활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중국복식에 대한 연구가 주로 형태나 아이템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색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중국인들의 색채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중국 청대(淸:1644-1911)<sup>3)</sup>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역사가 깊고 국토가 방대할 뿐 아니라 50여개가 넘는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기별, 지역별, 민족별로 서로 다른 색채선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청은 만족(滿族)이 세운 국가이지만 십종십부종(十從十不從)<sup>4)</sup>의 조례에 따라 만주족의 의관제도를 고수하는 동시에 한족(漢

族)의 전통양식을 수용하여 독특한 복식양식을 확립 하였으므로, 청대 복식은 중국의 전통복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특히 청대 하반기는 중국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점(1840~)으로 전통과 근대성이 혼합되어 표출되었으며, 공산당에 의해 정책적으로 차단되었던 중국의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복식의 색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청대복식의 고찰은 관복위주의 예복은 물론 서민들의 일상복, 복식소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귀족뿐 아니라 서민복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연구와 실제 유물을 고찰한 실증적인 고찰과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에 등장하는 각종 사진은 물론 회화도 청대인의 표현의지의 한 결과이며 물질문화의 한 현상으로 인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 II. 청대복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

중국은 복장과 머리장식의 왕국이라는 명성을 얻어왔을 정도로 다양한 복장과 장식이 애용되어 왔다. 이에 전통복식과 장신구는 중국 문화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중국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반영되어 있다. 즉, 경제, 정치, 군사적 문제, 이데올로기,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와 삶의 습관과 양식이 역사의 흐름과 함께 중국의 복식과 장신구와 밀접한 영향관계를 이루고 있다. 예로써 봉건왕조 시대의 복식 규범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구체화하였으며, 경제가 번영했던 수(隋)시대와 당(唐)시대에는

의복과 장신구의 치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더욱 화려하고 과감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송과 명시대에는 봉건적 윤리 규범과 엄격한 철학의 범람으로 복장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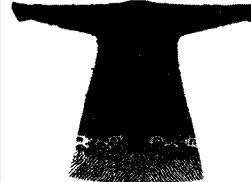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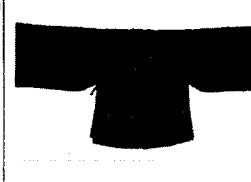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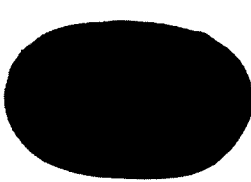



청시대(淸朝)는 만족과 한족이 약 300년간 문화를 공유하며 영향을 교류하였으며, 청시대의 복식 또한 한족과 만족의 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유형을 보이기도 하였다.

강희(康熙) 22년(1683)에는 복제와 예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복(漢服)으로 제복을 통용하게 규정하였고, 색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복식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다. 건륭은 "... 我朝滿洲先正地遺風, 自當永遠遵循(우리 조정은 만주선황이 남긴 풍속을 영원히 지키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 "衣冠必不可而(의

관은 쉽게 고칠 수 없다)"<sup>6)</sup>고 하여 만복(滿服)을 착용케 하였다. 이렇듯 국명(國命)으로 명(明)의 복제를 급한 예는 홍대용의 《을병연행록》<sup>7)</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에 있어 기본적으로 명의 제도를 따르거나 주요 예복인 조복에 12장문을 두고 계급을 구분하는 보자(補子)를 수용하는 등 명나라 제도를 병용하여<sup>8)</sup> 한족과 만족의 복식이 혼합된 새로운 유형을 보이기도 했다.

청대는 명대(明代)에 비해 남자의 복식이 보다 다양하였다. 기마족인 만족은 마패와 같이 승마에 편리한 옷을 착용하여, 전후좌우에 트임이 있거나 결금포(結襟袍)와 같은 의복구조를 이루었다. 여성복은 다양함이나 변화가 적었으며, 기본적으로 각 민족의 여성들은 각자의 복식제도를 고수하는 이중구조를 보

<표 1> 청대복식

청대 복식				
예복	 <그림 1> 19세기 말 명황+심청	 <그림 2> 19세기 중 석청+검정	 <그림 3> 18세기 말 청색+남색	 <그림 4> 19세기 말 대홍+청색
일상복	 <그림 5> 19세기 말 분홍+검정	 <그림 6> 19세기 말 밝은 녹색+검정	 <그림 7> 19세기 말 검정+청색	 <그림 8> 19세기 말 석청+오색(문양)
복식소품	 <그림 9> 지갑 홍색+남색	 <그림 10> 전족 홍색+분홍	 <그림 11> 모자 홍색+녹색	 <그림 12> 머리장신구 비취색

였다. 만족의 여성들은 의(衣)와 상(裳)이 연결된 장포(長袍)를 착용하였다. 이 장포는 허리 부분이 좁아지며 후대 만족 부녀의 대표적 의복인 치파오(旗袍)가 되었다. 포위에는 괘(褂)를 덧입었고, 한족 여성들은 명의 제도를 따라 봉관(鳳冠)을 착용했으며, 예복으로 하피(霞帔)를 착용하고 상의하상(上衣下裳)이 구분된 오(襖)와 군(裙)을 입었다.<sup>9)</sup>

한족의 포와 만족의 괘가 혼용된 청대 복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의복의 형태는 같다. 둘째, 포의 여밈은 앞에서 하고, 여미는 방법은 단추를 사용하였다.

셋째, 포에는 마제수(馬蹄袖)를 달았으며, 의례시나 방한의 위해서는 마제수를 내리고 평상시에는 위로 접어 올렸다.

넷째, 포의 깃부분은 사금형(斜襟形)을 이루고, 이색(異色)의 선(襟)장식을 부착하였다.

다섯째, 조복은 상의하상이 연결되었고, 허리부분에는 주름을 잡았다. 12장문을 시문하여 만족과 한족의 복식특성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여섯째, 청대 예복에는 령(領)이 없었기 때문에 포위에 경령(硬領)을 더 하였다.

일곱째, 남성들은 띠 위에 전대, 부채집, 향낭, 장도, 주머니, 안경집을, 여성들은 옷깃 부분에 귀이개나 이쑤시개, 족집게 등을 실용품이나 장식물을 달았다.

### Ⅲ. 청대 복식의 색채 분석

#### 1. 예복의 색채

청대의 예복은 크게 대례복과 소례복, 상례복으로 구분되며, 조복(朝服), 길복(吉服), 상복(常服)으로 남녀가 동일하게 착용하였으며 외괘(外褂)와 포(袍)로 구성되었다.

조복은 청대의 가장 중요한 대례복으로 황제부터 구품 관리까지 동일한 형식을 보이는데 황제는 조복을 착용할 경우 외괘(外褂:褒服)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황후는 조군(朝裙), 조포(朝袍), 조괘(朝褂) 등 3가지를 반드시 갖추어 입었다.

길복은 통상적으로 길경전례(吉慶典禮)시 착용하는 것으로 황제의 것은 용포(龍袍), 그 이하 신분의 사람은 망포(蟒袍)를 착용하였다.

상복의 경우 외괘는 황제에서 백관에 이르기까지 석청색(石青色)을 균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상복포는 색채와 화문에 한계가 없었고, 여성의 상복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sup>11)</sup> 특히 정조 14년 청을 기행하고 쓴 徐浩修의 연행기에서 “상복의 포색은 황색을 숭상하나 여러 빛깔을 쓰기도 한다. 외괘는 푸른 빛을 쓰되 무늬나 색채를 베풀지 않는다”<sup>12)</sup>라고 기록된 것처럼 황제의 상복은 강색, 심강색, 석청색, 명황색 등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황후 상복포의 경우 심람색에 분홍색 선장식, 담자색 비단에 석청색 선장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괘의 경우 계급에 따라 문양이나 그 명칭이 달랐지만 일률적으로 석청색을 사용한 반면, 포는 색상에 차등을 두어 사용하였다. 청대 복식규제에 대한 서적 및 선형 연구자료들<sup>13)</sup>에서 언급된 포의 색채를 계급에 따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즉, 청대 복식 규정에 의하면 외괘의 경우 지위와 무관하게 석청색을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황제 및 직계혈통과 그 배우자의 포는 황색을 착용하였으며, 황색이라도 명황, 행황, 금황, 향색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신분에 따라 착용하였다. 그 이하의 신분인 경우에는 남색이나 석청색의 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명을 비롯하여 이전 왕조에서는 황제의 상례복을 제외하고 거의 적색계열의 예복을 착용했던 사실과 비교할 때, 청대에는 황색과 남색의 착용도가 월등히 높아졌으며 이는 청대 예복 색채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일상복의 색채

청대 복식의 색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도층들이 착용했던 예복 외에도 일반 백성들의 복식에 사용된 색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중국의 지배계급의 관복이나 예복위주의 자료이므로, 궁중 외부의 생활이나 일반 서민들이 착용했던 복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당시대의 회화나

<표 2> 청대에복의 袍의 주요색

종류	남성복		여성복	
	지위	袍의 색	지위	袍의 색
朝服	皇帝	明黃色 (여름 常雋에는 남색, 朝日에는 紅色, 夕月에는 月白色(월백:淺藍)을 사용한다)	皇太后, 皇后, 皇貴妃	明黃色
	皇太子	杏黃色	皇太子妃	杏黃色
	皇子	金黃色	貴妃, 妃	金黃色
	親王, 親王世子, 郡王	金黃色 이상 금지 (단, 하사품은 금황색도 가능) 藍色, 石青色 위주 사용	嬪, 皇子福晉, 郡王福晉	香色
	貝勒, 貝子, 鎮國公, 輔國公	金黃色 이상 금지 그 이하 색 사용	貝勒夫人以下 七品命婦	藍色 또는 石青色
	民公, 侯, 伯	藍色 또는 石青色		
吉服	皇帝	明黃色	皇太后, 皇后	明黃色
	皇太子	杏黃色	皇太子妃	杏黃色
	皇子	金黃色	貴妃, 妃	金黃色
	親王, 親王世子, 郡王	金黃色 이상 금지 藍色, 石青 위주 사용	皇子福晉, 親王福晉, 親王世子福晉, 郡王福晉	香色
	貝勒, 貝子, 鎮國公, 輔國公	金黃色 금지 그 이하 색 사용	貝勒夫人以下 七品命婦 (民公夫人, 侯, 伯, 子, 男夫人)	藍色 또는 石青色
	民公, 侯	藍色 또는 石青色		
常服	색과 화문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청대상복포의 색채는 규정에 없다.	

소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대 소설에 등장하는 복식과 이에 대한 선행 연구나 국내의 복식사관련 문헌 자료들을 참고로 청대 일상복의 색채를 고찰하였다. 특히, 청대 소설을 활용하여 청대 복색(服色)을 연구한 李應絳의 저서<sup>14)</sup>는 당시 유행색에 대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청대의 소설 중 특히 《儒林外史》<sup>15)</sup> 《兒女英雄傳》<sup>16)</sup> 《紅樓夢》<sup>17)</sup> 등은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세 소설의 작가들은 강희, 건륭 등과 같은 청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그 중 오경제는 한인, 문강은 만족, 조설근은 만족의 적을 둔 한인으로 청대의 민족적 대표성을 지니는 작가였다. 또한 이들은 세도가 집안 출신이었으나 자신의 시기에 와서 일가가 몰락하는 등 과거 부귀영화를 경험한 후 말년에 이르러 빈궁한 처지에 처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세 소설을 통해 만족과 한족의 복식 문화 전반을 균형있게 살펴볼 수 있다. 중국고전소설

발전사에 있어 사실주의 문학의 정상에 이른 소설인 《紅樓夢》의 작가 조설근의 가문은 증조부, 조부, 부친의 3대에 걸쳐 세습적인 강녕직조(江寧織造)의 벼슬을 살았는데<sup>18)</sup> 이는 황실에 공급하는 직물의 제조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시대 직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주목된다. 위의 세 소설과 이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자료<sup>19)</sup>를 참고로 분석한 청대 일상복의 색채는 <표 3>, <표 4>와 같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세 소설에 등장하는 복색은 청색계열이 단연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미 청대 예복에서도 살펴봐왔듯이 계급을 불문하고 사용되었던 석청색과 남색의 선호 경향이 일반인들 사이에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儒林外史》의 경우 전체적으로 청색계열이 절대적으로 사용된 가운데 여성복에서는 황색계열과 홍색계열의 색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유럽 외사의 여성복식은 평민부녀자의 것으로 이 계층에서는 궁중예복으로 사용되는 황색이나 화려한 홍



색의 활용을 삼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紅樓夢》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색채는 홍색계이다. 홍루몽은 가(賈), 사(史), 왕(王), 설(薛)씨의 4대 귀족 가문이 등장하여 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청대의 관복체계와는 달리 화려한 색상이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여성복의 경우 건륭이후 한족을 모방하려했던 성향이 강했다는 사실이 이 소설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색과 함께 다양한 녹색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兒女英雄傳》에서는 당시 색채 분화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소설에 비해 의복의 색을 묘사한 횟수는 적지만 매우 섬세하게 차별화된 색채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된 점이 그러하다. 특히 청색계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석청이나 남색이외에도 보남(寶藍), 현청(玄靑), 홍청(紅靑), 천청(天靑), 월백(月白), 이남(二藍) 등 세분화된 색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등황(橙黃)이나 갈색(褐色) 기미를 띠는 다양한 황색들의 묘사도 보인다. 또한 남성복에 사용된 색채보다 여성복에 사용된 색채의 종류가 많은 것은 여성복에 보다 다양한 색채가 미묘하게 표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동시에 여성복에서 보다 섬세한 색채를 애용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청대 일상복은 예복과 마찬가지로 남녀를 불문하고 청색계를 선호하였으며, 홍색계는 서민들보다는 귀족계급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황색은 황실의 색상으로 일상복에는 거의 상용되지 않았으며, 비록 사용될 경우에도 갈색계열의 황색을 사용하여 황제의 명황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嘯亭雜錄에 의하면 청대 남성 마래의 경우 청대초기에는 天靑色을 숭상하였고, 건륭중기 이르러 玫瑰紫 색상이 유행하였고, 건륭말기에는 深靑色이 유행하였다”<sup>20</sup>라는 기록 등으로 보아 일상복에서 선호되는 색채도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3. 복식소품의 색채

복식 소품인 쓰개류, 신발류, 규방용품, 머리핀 등은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비교적 자유로운 색채사용이나 배색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다. 따라서 복식소품에 사용된 색채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소장 의 실제 청대의 유물 66건의 분석<sup>21</sup>을 통하여 조사하였다<표 5>. 복식 소품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복에서와 같이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색을 활용한 문양이 수 놓여 있다.

복식의 소품의 주조색으로 가장 많이 애용된 색채는 홍색계열이고 다음은 청색계, 흑색계 순으로 나타났다. 홍색계열은 화려하고 강렬한 빨강에서 선명하면서도 깊이 있는 빨강까지 전체적으로 진한 느낌의 색조가 선호되었다. 이것은 빨강색이 상징하는 행운을 희망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홍색계열의 주조색에 배색되는 보조색은 청색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주조색보다 진하고 보라색 기미를 띠는 청색이나 남색이 애용되었다.

청색계열은 의복에서와는 달리 주조색으로 사용한 사례가 그리 높지 않으나, 석청색에 비해 수수하며 다양한 단계의 색조를 띠는 남색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청색계열에 대한 보조색으로 빨강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홍색과 청색의 화려한 색채조화가

<표 4> 청대 소설을 통해 본 유행복색

색상계열	구분		《紅樓夢》		《兒女英雄傳》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靑色係	26	8	3	13	20	13	83
紅色係	7	0	8	20	3	0	46
黃色係	2	0	4	4	5	0	15
白色係	5	2	2	2	2	2	15
黑色係	8	2	0	1	2	0	13
綠色係	4	4	2	8	2	5	25
紫色係	1	1	1	3	1	2	9

청대에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흑색계열은 쓰개류의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오색을 사용한 화려한 자수의 바탕색으로 가장 적합한 색이며, 또한 실용적인 색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검정색에는 빨강색이 보조색으로 사용되어 강렬한 대비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소품의 주조색으로 황색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노랑색이 황제의 상징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때문이기도 했지만, 명대부터 선호되었던 빨강색이 행운의 상징과 함께 소품의 색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과 소설의 색채 분석에 나타난 결과와 일치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대표적인 복색이며, 중국에서 “~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남색 염색 산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청대에 남색의 사용이 빈번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예이다.<sup>22)</sup>

한편 청색과 남색의 구분에서 있어 이들 색상의 표기 및 전달이 주로 관용적인 표현방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중국에서의 남색은 청색에 비하여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으로 천람(天藍, 淺藍)은 하늘색을 의미한다. 반면 외패에 애용된 석청은<그림 2> 감색(紺色)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붉은 색을 띠는 검정으로<sup>23)</sup> 아주 어둡고 짙은 색들은 그 기미에 따라 천청이나 석청, 원청의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표 5> 복식 소품에 사용된 주조색과 보조색의 배색관계

색명	주조색	보조색	합계
紅色係	2	0	4
黃色係	1	0	2
綠色係	1	0	0
靑色係	6	0	2
紫色係	3	0	1
黑色係	9	0	2
金屬色	0	0	0
배색없음	6	0	2
합계	28	0	4

## IV. 청대 복식 색채의 특징

### 1. 청대 복식의 선호색

#### 1) 청색(靑色)과 남색(藍色)

청색과 남색은 청대에 특별히 애용되었던 색이라 할 수 있다<표 1>. 이런 청색계열에 대한 명칭들은 석청, 천청, 현청, 청, 양람, 보람, 남, 율백 등 무척 다양하였다<표 3>. 즉, 청색계열은 각색의 색상과 명도 및 채도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청색계에 대한 색채감정이 섬세하게 세분화되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청색이 명대에 주로 애용되었다고 한다면, 남색은 경극(희극)에서 남색 衫을 입은 것에서 비롯된 청대의

#### 2) 흑색(黑色)

《儒林外史》에서 묘사된 남자 복색에서는 흑색계가 8회나 등장<표 3>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흑색을 선호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고문헌들에서는 흑색계열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흑색계열의 표현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中國服裝色彩史論》<sup>24)</sup>에서는 흑색을 다른 색명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했음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흑색을 의미하는 색명으로는 현색, 조색, 원색 등이 있었으나 특히 현색의 “玄”자는 강희황제의 호인 “현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따라서 흑색을 청색으로 대신 표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대에 사용되던 흑색은 오색(烏色)처럼 새까만 색이 아니라 묵색(墨色)과 같은 짙은 색으로 빛의 각



도에 따라 색기미가 다르게 보여 흑색계열로 표기하기보다 다른 계열의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素服用元靑 也就是黑色”<sup>25)</sup>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박한 옷에는 원청을 사용하였다. 이것 또한 흑색에 가까웠는데, 이는 원청과 흑색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당시대인들의 색채의식의 하나로 이해된다.

### 3) 홍색(紅色)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홍색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嘯享繼彙》에 의하면“福文襄王이 深絳色을 좋아하여 사람들이 이를 福色이라하여 따랐다”<sup>26)</sup>하여 특히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홍색계열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대 홍색계열의 사용은 명대처럼 특별한 급제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복에 사용하기 힘든 상류층의 색상이었다. 이는 <표 4>에서 보이듯이 귀족집안을 배경으로 전개된 《紅樓夢》에서 홍색의 사용빈도가 극히 높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대홍색을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젊은 사람은 외출할 때에 대홍색, 나이가 있는 사람은 암홍색을 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평일 집안에서는 연한 홍색(천담색)을 착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예는 《兒女英雄傳》에서 안공자가 집에서 강색을 착용하였더니 그의 부친이 너무 화려하다하여 입지 못하게 한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궁중 예복에 있어서는 청색과 황색이 장려되며 사용되는 분위기로 인해 이전 왕조인 명대에 비해 홍색계열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복식소품에서는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색상이었다<표 5>.

### 4) 황색(黃色)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황색은 천황의 색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대 황색은 청색과 함께 황제를 비롯하여 대신들의 예복에 많이 사용된 색이다. 단, 황제의 황색은 밝고 선명한 명황<그림 1>이었고, 명황을 제외한 행황, 금황, 향색 등의 이름을 지닌 다양한 황색계열이 천황, 태자, 천자 및 그들의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

었다. 또한 徐浩修의 연행기에서는 “諸王, 貝勒, 公侯가 다 황색 褂服을 입고 扈從하였는데...”<sup>27)</sup>라고 기록하고 있어 청대에는 황색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황색의 사용이 여러 계급으로 확대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색상과 명도 등에서 황제의 것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황색이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황색에는 엄격이 말해 황색이라기보다는 등황이나 갈색계열로, 남성 평상복에 사용한 응방색(鷹膀色)이나 타용색(駝絨色)처럼 수수하고 어두운 색조를 띤다.

### 5) 백색(白色)

청대의 소설에 등장하는 백색 용어는 평균적으로 10%이하를 밀돌 정도로 그 빈도가 낮으나 은백, 월백, 옥색처럼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표 3>.

연행록에 기록된 “길에서 喪人을 만났는데,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흰 배 長衣를 입고, 흰 베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sup>28)</sup>, “...계집 여라몬이 다 소복을 입고 혼 음식 푸즈 뒤해 드러안자시대, 다 머리 흰 슈건 갖흔 거스로 니마를 돌너 뒤해 매야시니, 이는 복 낚은 계집의 제되러라...”<sup>29)</sup>라는 내용으로 보아 청대에 백색은 주로 상(喪)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 나아가 “白衣 차림으로는 天子의 車賀결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天子를 한번 보려고 역관의 관복을 빌어 입었다”<sup>30)</sup>는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듯이 백색은 일상복의 색으로 기피되었던 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색은 주로 상복(喪服)에 사용된 색으로 일상에서의 사용이 지양되었고, 더운 계절이나 비공식적인 행사, 제사를 위해서는 순수한 백색 대신에 청색이나 녹색기미가 가미된 밝은 색들 즉, 월백, 천랍, 옥색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6) 녹색(綠色)

녹색은 당, 송, 원, 명대의 관복으로 규정되었으나, 청조 관복제도의 등급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sup>31)</sup>에서도 보이듯이 청대 관복의 색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청대의 의복의 실물을 사진으로 정리한 문헌<sup>32)</sup>에 수록되어 있는 의상 312벌 중 정확한 색채판

별이 가능한 의상은 126건인데, 이 중에서도 단지 4벌의 의복만이 녹색계열일 뿐이다. 이처럼 녹색은 청대 여성의 상례복이나 일상복에서 일부 보이나, 그 색채는 <그림 6>과 같이 엷은 색이 대부분이다.

남성의 경우 일상복에 녹색을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무나 백색을 대신하여 옥색을 사용한 예는 많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녹색을 좀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紅樓夢》에서는 매우 짙고 어두운 녹색계열인 유녹(油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표 4>.

관복으로 사용되었던 녹색은 대녹색이었으나, 청대에는 관복대신 일상복에 주로 사용되며, 그 색채도 짙고 어두운 관록이나 청색에 가까운 정도로 어두운 유녹 혹은 엷은 총록, 수녹, 옥색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복식소품에 있어서는 <그림11>처럼 홍색과 배색되어 선장식이나 자수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7) 자색(紫色)

금대(金代)에는 여성 복식에는 흑자색이 애용되었으나, 청대에 와서 자색은 청색이나 홍색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색상으로 인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대의 소설에 언급된 자색의 빈도도 사용이 평균 5%정도에 머물 정도로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대에 편찬된 《잠상채편蠶桑萃編》, 《소주직조국지蘇州織造局志》에 명시된 염색명 50종 중에서 자색, 소갈, 장자의 단지 3종의 자색명만이 포함되다”<sup>33)</sup>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대부터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한 자색은 청대에 와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복식의 색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대 복색의 특징은 청색의 사용이 부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색이나 녹색의 사용은 시대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색채의 톤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밝은 색을 중심으로 밝고 엷은 색상보다는 짙고 어두운 색의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어두운 색의 사용은 청대의 사회적 환경 즉, 권위적인 정치적 압박과 폐쇄적인 과거제도로 인한 중국인들의 심적인 중압감과 위축감이 흑색이나 청색 등의 짙은 색의 선호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4)</sup>

위에서 언급한 색채들의 정확한 재현은 불가능하지만 JIS규정으로 표기된 중국전통색대조표<sup>35)</sup>를 통해서 살펴보면 휴톤표 상에 <표 6>과 같이 분포됨을 알 수 있다.

<표 6> 청대 사용된 색채

	V	S	B	lt	P	ltg	Sf	G	D	dp	dk	dkg
v	대홍	영황 금황	빙황									
s	수홍											백
b			총황 총록									은백
lt	도홍		민합		청색계							백색계
p					옥색	흰백	백색계					
ltg						천립						
Sf												
G		타용										흑색계
D	운홍							남				
dp	강	향색	송화			비록	청			자색계		흑
dk	홍색계		황색계			사녹	석청			자색		
dkg						녹색계						

## 2. 색채 조화의 특징

### 1) 다채색의 조화

청대 복식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 의복에 여러 가지 색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예복이나 소품류에는 바탕색과 다른 다채색의 문양을 자수나 직조로 표현하고 있어 화려한 표면 구성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문양은 용문이나 망문처럼 신분을 상징하거나, 꽃과 식물들로 구성된 계절을 나타내는 문양, 문자 등과 같은 길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양 등으로 착용자의 길복을 기원하듯 장식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능한 많은 색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화려할 뿐 아니라 의복은 표면에 시문된 문양이 바탕의 색과 명도나 보색대비를 이루어 주변환경과 차별화되는 강한 주목성을 띠게 된다. 또한 깃과 수구 등 선장식에 사용된 보조색은 화려한 문양과 함께 바탕이 되는 주조색과 어우러져 의복을 더욱 평면적으로 보이게 한다<그림 4><그림 8>. 문양의 색채만큼이나 의복의 구성 공간마다 다른 색을 사용한 점도 청대 복색의 특징으로 주목된다.

### 2) 보색의 조화

청대 복식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대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특히, 황색과 청색, 홍색과 청색 등과 같이 보색대비를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이들 보색대비는 시인도가 높아서 복식의 형태를 강조하는 동시에 착용자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크다.

황제의 예복은 명황색의 포에 석청색의 소매를 부착되어 있는데, 이들은 색상 및 색조에 있어서 강한 보색대비를 이룬다<그림 1>. 또한 석청색의 령이나 수구는 명황색 포와 착용자의 얼굴색에서 보이는 황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무채색에 가까운 석청색의 선장식은 포와 얼굴의 황색을 구분하는 세퍼레이션 컬러의 역할을 하여 의복과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수구 부분의 오염을 가리는 실용적인 기능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홍색계와 청색계의 대비<그림 4>도 청대에 사용된 보색조화의 하나이다. 음양조화에 따른 홍색과 녹색의 배색<그림 11>은 청대에 와서 홍색과 청색과

의 배색으로 보편화되었고 상류계층의 복식이나 혼례복에서 애용되었다. 이는 한족 복식문화의 특성으로 《紅樓夢》에서도 대홍색과 석청색의 배색법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예복에 착용되는 조곤의 상하 배색이나 황제의 춘분 조복의 배색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길일에 착용하는 복식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용 쓰개류나 지갑류<그림 9> 등에도 상징적으로 애용되었다.

### 3) 유채색과 무채색의 조화

청대 의복에는 유채색과 검정과 같은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색채조화도 많다. 즉, 명도가 높은 밝은 분홍색이나 밝은 녹색 의복의 선장식에 검정색을 사용한 경우는 황색과 석청색으로 구성된 보색조화의 의복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시각 효과를 지닌다<그림 5><그림 6>. 이것은 분홍색과 검정색이 만들어내는 강한 명도대비가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는 물론 의복의 장식요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반면 명도가 낮은 청색계열과 검정색의 배색은 장식적인 효과보다는 단일색상처럼 인지되어 지배계층의 강인함과 근엄함을 표출하기도 한다<그림 2>.

### 4) 유사색의 조화

청대는 예복에서부터 평상복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청색과 홍색의 사용이 빈번했었던 만큼 이들 색상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배색법이 보인다. 이 두 가지 각 색상을 중심으로 명도나 채도를 달리한 유사색상계열의 배색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배색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청색과 천람의 조화<그림 3> 또는 홍색과 분홍의 조화<그림 10>는 차분함을 특징으로 하며, 왕실의 상례복이나 일반백성의 장신구에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 V. 결론

1644년 명의 멸망으로 중국을 통치하게 된 청은 만족과 한족의 문화가 공유되어 나타났으며, 복식에서도 이중구조의 형식을 띠었다. 즉, 독특한 청대의

복색과 명대 복식의 영향이 예복과 평상복의 복색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청대 의복에 사용되었던 색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대 복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색계의 애용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예복과 평상복에 폭넓게 착용되었으며, 색명도 심청, 천청, 남, 청, 천람, 월백 등으로 다양하였다.

둘째, 명황색의 상징성이 강화되었다. 명황을 제외한 다른 기미의 황색들이 신분에 따라 사용되었으나 황제의 색인 명황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명대 한족 문화에서 가장 선호되던 홍색은 청대에도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다. 길상의 의미로 혼인과 같은 길일의 예복 색으로 특히 귀족계급에서 많이 선호되었다.

넷째, 짙은 색상의 사용이 주목되었다. 심청, 청, 석청 같은 청색계, 유록색 같은 녹색계, 갈색계 등의 짙은 색이 애용되었다. 이는 표면 장식이 많은 청의 복식에서 화려한 장식문양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짙은 색의 바탕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백색은 상복(喪服)색으로 회피하는 색이었으며, 백색으로 보이는 일상복은 옥색이나 월백색 등 녹색이나 청색기미를 약하게 띠는 색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섯째, 색채조화는 보색대비나 명도대비를 활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민족을 백(白)의 민족이라 칭해지듯 청대는 “청색 복색(靑色服色)의 시대”라 규정지어도 좋을 정도로 청색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청시대의 색채 연구로 전체 중국의 색채문화로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검증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고찰된 청시대의 색채와 배색의 특징 등은 중국과 중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색채 연구에서 의미론적인 접근을 추가하여 현재 중국인들의 색채사용법에서 전통과 현대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사)한국색채학회 (2002). *이제는 색이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 p. 30.
- 2) 미미쿠퍼·앨런매튜, 안진환 역 (2002). *Color smart*. 서울: 오늘의 책, p. 171.
- 3) 黃能馥, 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p. 411.  
清대의 시기구분은 1644년 淸順治帝福臨이 입관함으로부터 시작하여 1911년 신해혁명까지를 보는 경우와 1912년 宣統帝 푸이의 퇴위까지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1644~1911년까지로 설정하였다.
- 4) 위의 책, p. 411.  
십종십부종(十從十不從):(1)남자는 청나라 조정에 따르되 여자는 따르지 않는다 (2)산 사람은 따르되 죽은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3)남편은 따르되 아내는 따르지 않는다 (4)관료는 따르되 아전은 따르지 않는다 (5)노인은 따르되 젊은이는 따르지 않는다 (6)유학자는 따르되 승려나 도사는 따르지 않는다 (7)기생들은 따르되 광대나 배우자는 따르지 않는다 (8)벼슬길은 따르되 혼인은 그대로 한다 (9)나라이름은 따르되 벼슬 이름은 예대로 둔다 (10) 부역이나 납세는 따르되 말이나 글은 예대로 둔다.
- 5) 周飛, 高春明 (1991).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p. 1.
- 6) 이정옥 외 (1999). *清代服飾史*. 형설출판사, p. 17.
- 7) 홍대용, 소재영 외 주해 (1997). *주해 을병언행록*. 서울: 태학사, p. 166.
- 8) 임기중 (2002). *연행록연구*. 서울: 일지사, p. 350.
- 9) 이정옥 외. *앞의 책*, pp. 17~18.
- 10) 위의 책, p. 18.
- 11) 李應强 (1993). *中國服裝色彩史論*. 台北: 南天書局, pp. 35~38.
- 12) 徐浩修 (정조14년, 1790). *연행기*, pp. 190~194.
- 13) 李應强. *앞의 책*, pp. 61~74.  
黃能馥, 陳娟娟. *앞의 책*, pp. 436~451를 참고로 구성.
- 14) 李應强. *앞의 책*.
- 15) 吳敬梓, 徐進業 발행 (中華民國65年). *儒林外史*. 台北: 文化圖書公司.
- 16) 文康 (1988). *兒女英雄傳*. 台北: 桂冠.
- 17) 曹雪芹, 한국문헌연구소 편찬 (1988). *紅樓夢*. 서울: 아세아문화사.
- 18) 허룡구 (1991). *홍루몽 해설 및 연구자료집*. 서울: 도서출판예하, pp. 21~33.
- 19) 李應强. *앞의 책*, pp. 99~109.  
나혜연 (1994). *홍루몽에 나타난 청대복식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黃能馥, 陳娟娟. 앞의 책, p. 474.
- 21) 해피아이소장유물, 2003년 5월22일~5월28일 조사.
- 22) 李應強. 앞의 책, pp. 103-109.
- 23) 周飛, 高春明 (1991). 앞의 책, p. 261.
- 24) 李應強. 앞의 책, pp. 104-105.
- 25) 周飛, 高春明 (1991). 앞의 책, p. 261.
- 26) 위의 책, p. 262.
- 27) 임기중 (1992). 조천록과 연행록의 복식. 한국복식 제 10호, p. 67.
- 28) 위의 책, pp. 90~91.
- 29) 홍대용. 앞의 책, p. 173.
- 30) 임기중 (1992). 앞의 책, p. 81.
- 31) 박현경 (2003). 淸朝 관복제도의 등급체계에 관한 연구 (제1보). 복식, 53, p. 32.
- 32) Robert D. Jacobsen (2000). *Imperial Silk-Ch'ing dynasty textiles in the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Volume 1.* The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 33) 李應強. 앞의 책, pp. 104-105.
- 34) 위의 책, p. 105.
- 35) 위의 책, pp. 145-148.